

01. ⑤ 02. ① 03. ② 04. ⑤ 05. ⑤ 06. ② 07. ② 08. ④ 09. ④ 10. ③
 11. ③ 12. ③ 13. ① 14. ④ 15. ③ 16. ④ 17. ① 18. ⑤ 19. ④ 20. ①

1. 공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여 예를 회복하는 것[克己復禮]을 인(仁)의 실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본래 타고난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사회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 ② 모든 분별적 인식에서 벗어나 만물을 차별 없이 응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 ③ 겸허와 부쟁(不爭)의 덕을 지니고 무위자연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 ④ 사성제(四聖諦)의 진리를 깨달아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2. 소크라테스와 에피쿠로스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소크라테스이고,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가. 소크라테스는 긍정, 에피쿠로스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것이 덕이며, 덕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반면에 에피쿠로스는 덕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줄 때에만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나. 소크라테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정의의 덕을 지닌 정의로운 사람은 행복하고, 정의의 덕을 갖추지 못한 부정직한 사람은 불행하다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다. 에피쿠로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무분별하게 충족하면 오히려 고통을 낳는다고 보았다.
- 르. 에피쿠로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에피쿠로스는 운명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3. 아퀴나스와 스피노자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아퀴나스이고, 을은 스피노자이다. 아퀴나스는 이성을 통해 자연적 성향을 인식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자연적 성향 중의 하나가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성향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아퀴나스는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은 자연법에 기초해야 하며, 실정법이 자연법을 위반할 경우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았다.

- ③ 스피노자는 '신, 즉 자연'이 유일한 실체이며 다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④ 스피노자는 그 자신만으로 존재하고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이를 실체라고 주장하였다.

- ⑤ 스피노자는 신이 모든 것을 특정한 목적을 향해 이끈다고 보지 않았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은 자연 바깥에 존재하는 초월적 창조자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이다.

4. 노자와 장자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장자이고, 을은 노자이다. 다. 노자는 하늘과 땅이 도(道)를 본받아 인간적인 덕목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고,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으며[天地不仁] 성인(聖人)도 어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르. 노자와 장자는 모두 도가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면서 만물에 내재한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가. 장자는 모든 사람이 각자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성과 능력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 나. 제물(齊物)을 통하여 정신의 절대적 자유에 도달한다고 본 사상가는 장자이다.

5. 데카르트와 흄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데카르트이고, 을은 흄이다. 데카르트와 흄은 모두 인간의 이성은 추론적 사유와 진위 판단 능력을 지닌다고 보았다. 데카르트는 이성이 지닌 추론적 사유와 진위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자명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흄은 이성이 감정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알려주고, 사실의 참-거짓을 발견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데카르트는 더 이상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명한 진리가 존재하며 이를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데카르트는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해보는 방법적 회의를 지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사유하는 '나'라는 존재의 확실성은 방법적 회의의 결과로 얻은 진리이다.
- ③ 흄은 유용성이 도덕감의 근원이며, 유용성이 항상 타인과 관련해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사회 전체와 관련해서도 고려된다고 보았다.
- ④ 흄은 이성이 도덕적 구별의 원천이 아니며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6. 이항과 이이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이항이고, 을은 이이이다. 가. 이항만의 입장이다. 이항은 이가 기를 주재하는 주재성을 지니면서, 발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이이는 이가 주재성을 지니지만 발할 수는 없으며, 기는 발할 수는 있지만 주재성은 없다고 보았다. 다. 이

황과 이이의 공통 입장이다. 이황과 이이는 모두 성리학자로서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의 '이일분수(理一分殊)'에 대한 입장을 긍정하였다. 주희는 이(理)는 본래 하나의 태극(太極)이고 만물도 각각 동일한 이인 태극을 지니고 있다는 '이일분수'를 주장하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 이황만의 입장이다. 이황은 칠정은 기가 주도하여 발한 감정으므로 칠정 중에서 선한 감정도 이가 주도하여 발하여 본래 선한 사단보다 도덕적으로 아래에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이이는 사단을 칠정 중의 선한 감정으로 보아 칠정 중 선함과 사단 사이에 도덕적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보았다.

ㄹ. 이황만의 입장이다. 이황은 사단은 이(理)를, 칠정은 기(氣)를 주로 하는 감정이라고 보고 사단과 칠정을 구별하였다. 반면에 이이는 사단과 칠정이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감정이라고 주장하며, 사단과 칠정을 이와 기의 주된 바를 가지고 구별하지 않았다.

7. 정약용이 이황과 이이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은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사덕(四德)인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사단의 마음을 실천함으로써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성리학자인 이황과 이이는 모두 사덕은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주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정약용은 이황과 이이에게 시비지심을 인간관계에서 실천해야 지(智)가 형성됨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황과 이이는 모두 인간이 측은지심과 수오지심 등의 사단(四端)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③ 이황과 이이는 모두 인간의 선천적인 본성은 하늘이 부여한 명령[天命]이라고 보았다.

④ 정약용은 영지의 기호가 인간만이 지닌 도덕적 기호로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기호라고 보았다.

⑤ 정약용은 인간이 선택하고자 하면 선택할 수 있고 악하고자 하면 악할 수 있는 자유의지, 즉 자주지권(自主之權)을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존재라고 보았다.

8. 비롤리와 벌린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공화주의 사상가인 비롤리이고, 을은 자유주의 사상가인 벌린이다. 벌린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의로운 제도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비롤리는 누구도 자의적인 지배를 받지 않아야 자유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② 비롤리는 비지배의 자유가 법의 지배와 같은 자의적이지 않은 지배가 실현되어야

가능하다고 보았다.

③ 벌린은 자유의 경계선이 침범되지 않도록 소극적 자유 즉, '~로부터의 자유'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벌린에 따르면, '~을 향한 자유'는 적극적 자유이다.

⑤ 벌린은 공동체가 외부의 압제에서 벗어나더라도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지 않았다. 벌린은 개인의 자유가 실현되려면 개인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는 소극적 자유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9. 밀이 벤담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벤담이고, 을은 밀이다. 벤담은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으며, 오직 양적 차이만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밀은 쾌락의 양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밀은 벤담에게 쾌락을 평가하는 기준이 양으로만 한정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벤담은 행위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의 쾌락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벤담은 유용성이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았다.

③ 벤담은 보편적 도덕 원리인 공리의 원리에 근거한 입법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보았다.

⑤ 벤담은 도덕적 평가의 근거가 행위의 결과라고 보았다.

10. 루소와 로크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루소이고, 을은 로크이다. 로크에 따르면,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는 것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사회에서 확립된 법률이다. 로크는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루소는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이며, 양도될 수 없고 주권자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루소는 정부는 대표자가 아니라 주권자의 대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② 루소는 일반 의지가 강요하는 복종은 시민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연법에 따라 재산권 침해에 대해 보복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⑤ 루소와 로크는 모두 사람들은 사회계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도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11. 스토아학파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스토아학파 사상가 아우렐리우스이고, 을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선한 것이 없으면 악은 있을 수 없으며, 악은 선의 결여일 뿐이라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스토아학파는 자연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이성,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인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② 스토아학파는 필연적 질서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사건에 대한 생각은 바꿀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주는 선과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만든 악의 투쟁이 인류의 역사라고 보았다.
- ⑤ 스토아학파와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스토아학파는 신(이성, 자연)이 만물의 본질이자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보았다. 그리스도교 사상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존재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보았다.

12.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플라톤이고,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선(좋은)이라는 목적을 지향한다고 보았으며, 사물도 선(좋은)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플라톤은 선(善) 자체는 인식의 원인이며, 이성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플라톤은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은 감각을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이데아에 대한 지식은 이성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선한 것들을 선하게 만드는 선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 자체가 분리되어 감각으로 지각되지 않는 세계에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13.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의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중관 사상을 주장한 용수이고, 을은 유식 사상을 주장한 세친이다. 용수는 모든 존재는 연기에 의해 원인과 결과로 얽힌 상호 의존적 존재이므로 어떤 것도 독자적인 고유한 성질[自性]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용수는 있음[有]이나 없음[無]이라는 두 극단에서 벗어나 중도(中道)의 진리를 바르게 관찰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세친은 모든 현상은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마음의 작용을 통해 존재한다고 보았다.
- ④ 세친은 해탈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릇된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진리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용수와 세친은 모두 모든 현상이 다양한 원인[因]과 조건[緣]의 화합에 따라 발생한다고 보았다.

14. 칸트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나. 칸트는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았다. 르. 칸트는 의지의 자율을 지닌 이성적 존재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자율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가. 칸트는 선의지를 함유하지 않은 도덕적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았다.
- 디. 칸트는 의지를 지니는 모든 존재 중에서 신은 신성하고 절대적으로 선한 의지를 지닌다고 보았다. 칸트에 따르면, 신의 의지는 도덕 법칙과 일치하므로 신에게는 도덕 법칙이 도덕적 의무로 부과되지 않는다.

15. 케인스, 하이에크, 민주 사회주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케인스이고, 을은 하이에크이다. 병은 민주 사회주의의 입장이다. 민주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적 계획화를 통해 완전 고용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하이에크는 사회주의가 제시하는 계획은 경쟁에 반하는 계획이라고 보고 반대하였다. 따라서 민주 사회주의의 입장에서는 하이에크에게 사회주의적 계획화를 통해 완전 고용에 힘써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케인스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의 실현과 같은 공익이 목적이라면 투자의 사회화를 실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하이에크는 경쟁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창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④ 하이에크는 사회주의가 제시하는 생산 수단의 국유화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다.
- ⑤ 민주 사회주의에서는 사적 이윤보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16. 혜능과 지눌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혜능이고, 을은 지눌이다. 지눌은 돈오하더라도 오랫동안 누적된 그릇된 인식과 습기(習氣)는 바로 제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혜능은 자신의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고 자신의 마음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 ② 혜능은 모든 사람이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불성을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지논은 선정[定]과 지혜[慧]를 함께 닦아야 하며, 마음의 본체인 선정과 마음의 인식 작용인 지혜는 둘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⑤ 지논은 깨달음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 과정에서 경전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7. 하이데거와 듀이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하이데거이고, 을은 듀이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자가 인간이라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통해 현존재는 보편적 본질이 아니라 자신의 참된 실존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듀이는 실험을 통해 검증된 가설도 상황이 변하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 ④ 듀이는 지식이 절대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지 않았다.
- ⑤ 하이데거는 근대 이성 중심의 객관적인 합리성의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18.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주희이고, 을은 왕수인이다. ㄷ. 왕수인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양지(良知)가 있으며, 양지는 선악과 시비를 판단하는 능력이면서도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이라고 보았다. ㄹ. 주희는 천지 만물에 담긴 하늘의 이치를 탐구하는 격물이 자기 마음의 천리(天理)를 보존하는 수양 방법이라고 보았다. 왕수인은 격물을 자신의 의념[意]이 머무는 사사물물에서 바르지 못함을 바르게 하여 천리를 보존하고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ㄱ. 주희는 격물을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 ㄴ. 왕수인은 양지는 도덕적 시비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 앎과 실천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다.

19. 위정척사 사상과 개화사상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위정척사 사상가인 이항로이고, 을은 온건적 개화사상인 동도서기(東道西器)론을 주장한 신기선이다. 신기선은 부국강병을 실현하려면 서양의 기(器)를 수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이항로는 서양의 문물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신기선은 이항로에게 부국강병을 실현하려면 서양의 기를 수용해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신기선은 유교의 인륜을 고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이항로는 후천(後天) 세계가 현세에 반드시 도래한다고 보지 않았다.
- ③ 이항로는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신기선은 우리의 도(道)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20. 홉스와 슐페터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홉스이고, 을은 슐페터이다. 홉스는 대표자는 계약의 주체인 사람들에게서 권한을 양도받은 대리인이라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홉스는 국가가 시민들 간의 계약 체결로 인해 설립되며, 주권자는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홉스에 따르면, 사회계약을 통해 사람들 모두의 권력과 힘을 부여받은 것이 국가이며 이 국가를 담당하는 자가 주권자이다.
- ③ 슐페터는 민주주의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 즉 엘리트가 대중의 승인을 얻기 위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보았다.
- ④ 슐페터는 민주주의는 시민이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치적 지배는 정치 엘리트인 지도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보았다.
- ⑤ 홉스는 시민의 모든 권리를 양도받은 국가의 대표자, 즉 주권자는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